

중학교 문법, 최소 이것만은 기억하자!!!

[국어] 박 하 영 tr

반 번 이름 :

I. 음운

1. 음운

: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함.

- **최소 대립쌍** : 두 개의 서로 다른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최소 대립쌍의 개념이 유용함. 최소 대립쌍은 같은 위치에 놓인 소리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함.

예) 발↔팔(ㅂ:ㅍ), 발↔불(ㅈ:ㅊ), 보리↔소리(ㅂ:ㅅ), 노루↔나루(ㄴ:ㄷ).

- **음운의 종류** : 본질 음운(분리할 수 있는 음운) + 비본질 음운(분리할 수 없는 음운)

본질 음운	◦ 자음 : 공기가 방해를 받아서 나오며 홀로 쓰이지 못하는 소리. 예) ㄱ, ㄴ, ㄷ
	◦ 모음 :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으며 홀로 발음되는 소리. 예) ㅏ, ㅑ, ㅓ, ㅕ
	◦ 반모음 : 활음(滑音, glide)이라고도 함.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으나 홀로 쓰이지 못하는 소리. 반모음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룸(단모음+반모음, 반모음+단모음). 'ㅟ, ㅠ, ㅢ, ㅤ, ㅥ, ㅦ, ㅧ'는 'ㅇ'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고, 'ㅡ, ㅣ, ㅤ, ㅥ'는 'w'가 결합한 이중 모음임. 예) ㅟ, w
비본질 음운	◦ 장단 : 소리의 길이로 단어의 뜻을 변별. 예) 눈 : (雪)↔눈(目)

2. 국어의 자음 체계

: 조음 위치(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어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구분함.

: 조음 방식에 따라 입안이나 코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 안울림소리, 울림소리로 구분함.

조음 방식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돋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돋소리			ㅊ		
		거센소리			ㅉ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ㅇ
		돋소리		ㅆ			
		거센소리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3. 국어의 모음 체계

: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

-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ㅣ	ㅜ	ㅡ	ㅛ
중모음	ㅑ	ㅜ	ㅓ	ㅝ
저모음	ㅓ		ㅗ	

: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서 발음되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함.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Ⅱ.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은 예시를 꼭 확인하기!!!

1. 교체 -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 [예] 낫[낫], 잎[잎]
: 음절 끝에 올 수 없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하는 현상
- **비음화** [예] 국물[궁물], 만며느리[만머느리]
: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예] 난리[날리], 불나방[불라방]
: 'ㄴ'에 인접한 'ㄴ'이 'ㄴ'로 바뀌는 현상
- **구개음화** [예] 굳이[구지], 같이[가치]
: 형태소의 끝소리인 'ㄷ, ㅌ'이 'ㅣ'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조사 혹은 어미)와 만날 때 'ㄷ, ㅌ'으로 바뀌는 현상
- **된소리되기** [예] 국밥[국뽕], 각설탕[각썰탕]
: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2. 탈락 -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 [예] 닳[닥], 읊대[읍따]
: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 **'ㄴ' 탈락** [예] '알-+'-는[아는], '살-+'-시다[사시다]
: 'ㄴ'이 'ㄴ, ㄷ, ㅅ, ㅌ' 등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ㅎ' 탈락** [예] 좋아[조아], 넣어[너어]
: 어간 말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조사 혹은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ㄷ' 탈락** [예] 크어[커], 쓰어써[써서]
: 용언 어간 말의 'ㄷ'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3.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ㄴ' 첨가** [예] 논일[논닐], 한여름[한너름]
: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할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

4. 축약 -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 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예] 국화[구과], 만형[마형]
: 'ㅎ'과 'ㄱ, ㄷ, ㅂ, ㅌ'이 만나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Ⅲ. 단어

1. 형태소

: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

- **종류**
 - 자립성의 유무 :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 의미의 성격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2. 단어

: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와 의존 명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함.

- **구조** : 어근 & 접사
 - 어근 :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부분. 어휘 형태소가 담당함.
 - 접사 : 어근과 결합하여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 단어의 분류

단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복합어	합성어 : 단어를 둘로 쪼개었을 때 둘 다 어근인 단어
	파생어 : 단어를 둘로 쪼개었을 때 그중 하나가 접사인 단어

• 합성어의 형성

- 통사적 합성어 :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과 동일한 합성어 [예] 돌아가다

- 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합성어

- ① 용언과 용언의 결합 시 연결어미 생략 예) 빌먹다
- ② 용언의 어간+명사 예) 접갈, 덮밥
- ③ 부사나 부사성 어근 + 명사 예) 산들바람, 뽕죽구두
- ④ 한자어에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경우 예) 독서, 등산

· 파생어의 형성

- 접사의 종류에 따른 파생어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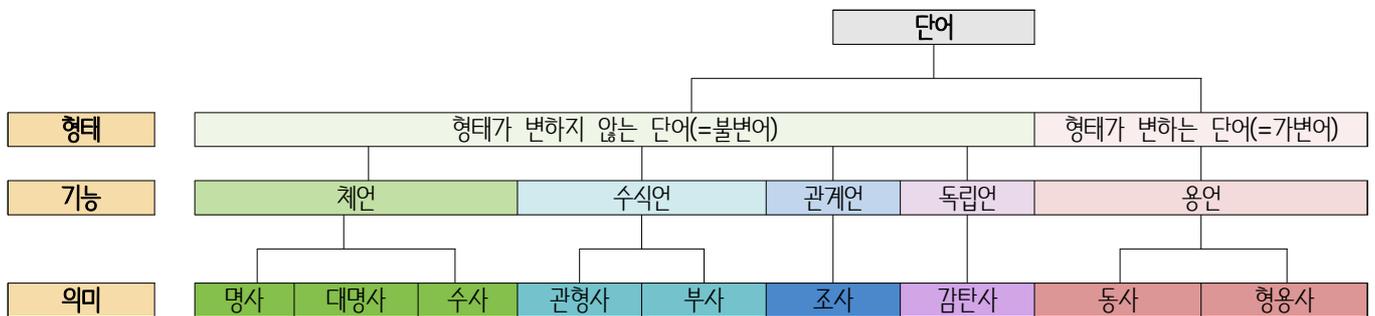
- 접두 파생어 : 어근 앞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경우

- 접미 파생어 :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경우

☞ 어근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함.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이 적지 않음. '-스럽-(사랑스럽다), -이(먹이), -기(나누기)' 등은 모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의 예임.

3. 품사 -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갈래

- **형태** :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음. 가변어는 어미를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고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임.
- **기능** :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역할)을 기준으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음. 수식언은 다시 무엇을 꾸미느냐에 따라 관형사와 부사로 나눌 수 있으며, 관계언에는 조사가,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음.
- **의미** : 단어가 가진 의미를 기준으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고 용언은 동사, 형용사로 나눌 수 있음.



· 품사별 특성

- **체언** :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격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로 쓰일 수 있으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대명사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 ◦ 인칭 대명사 / 지시 대명사 ◦ 미지칭 대명사 / 부정칭 대명사 ◦ 재귀 대명사 예) 학생: 엄마, 걸레는 어디에 있어요? 엄마: 왼쪽에 있어.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예) -수량: 하나, 둘, 셋/ 일, 이, 삼 -순서: 첫째, 둘째, 셋째

- **용언** :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어간+어미),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 기능을 함.

동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예) 뛰다, 웃다, 만들다
형용사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예) 아름답다, 고요하다, 즐겁다
동사 vs 형용사	① 동사 어간에는 평서형에서 현재 시제 '-ㄴ/는-'이 붙지만 형용사에는 붙지 않음. ②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으)ㄴ'이 붙음. ③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음. ④ 동사 어간에는 '-(으)려고', '-고자' 등이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음.

☞ **어간과 어미**

어간	용언의 활용에서 형태가 고정된 부분
-----------	---------------------

어미	어간 뒤에 결합하여 여러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
어말 어미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어미 예) -(으)시-, -았/었-, -겠-
종결 어미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다, -구나, -십시오
연결 어미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고, -지만, -(으)면, -(으)니까
전성 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예) -(으)ㄴ, -기, -(으)ㄴ, -는

- 수식어 :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함.

관형사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예) 오늘 새 옷을 샀다.
부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단어 예) 이 발명품은 매우 기발하다.

- 관계어 : 홀로 쓰일 수 없어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이며, 문장에 쓰인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조사	격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로 주격, 목적격, 보격, 서술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조사 등이 있음. 예) 이/가, 께서, 을/를, 이다, 의, 에, 에서, (으)로, 아/야 등
	보조사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로 격조사와 달리 생략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장 성분과 결합할 수 있음. 예) 은/는(대조), 만(단독), 도(포함) 등
	접속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 와/과 등

- 독립어 :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임.

감탄사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 예) 아, 하늘 좀 봐! 정말 많아.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떡하지?
-----	--

IV. 문장

1. 문장 성분 -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음.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성분으로서 관형어, 부사어가 있음.
독립 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분으로서 독립어가 있음.

· 주성분

- 주어 :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임. 예) 철수가 밥을 먹는다.
- 서술어 :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임. 예) 철수가 밥을 먹는다.
- 목적어 :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임. 예) 철수가 밥을 먹는다.
- 보어 :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임. 예) 철수가 밥이 되었다.

· 부속 성분

- 관형어 :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임. 예) 철수가 맛있는 밥을 먹는다.
- 부사어 :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임.

성분 부사어	특정 성분을 수식함. 예) 철수가 밥을 맛있게 먹는다.
문장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함. 예) 다행히 철수가 밥을 먹는다.

☞ 필수 부사어 : 부사어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의 성분, 이 중 문장에서 생략되지 못하는 성분을 필수 부사어라고 함.

예) 정민이가 민정이를 친구로 삼았다. 정민이가 민정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 독립 성분

- 독립어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임. 예) 어머, 철수가 밥을 먹는다. 형, 이것 좀 보세요.

2. 문장의 구조

흐름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겹문장	이어진	둘 이상의 흐름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
	문장	예)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안은	다른 흐름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문장	예) 나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 나열·대조·선택의 의미 관계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나열) 이건 비싸지만 저건 싸다.(대조) 내일 가거나 모레 가세요.(선택)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이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 '-어서, -(으)니, -(으)니까, -거든, -고자' 등으로 이어진 문장

예) 비가 와서 땅이 질다. 집에 가는데 옛 친구를 만났다.

☞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①순서 이동이 가능한가? ②문장 안으로 이동이 가능한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순서 이동	가능!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O)	불가능! 예) 비가 와서 땅이 질다. → 땅이 질어서 비가 온다.(X)
문장 내로 이동	불가능!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바람이 비가 오고 분다.(X)	가능! 예) 비가 와서 땅이 질다. → 땅이 비가 와서 질다.(O)

• 안은 문장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절을 안은 문장.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 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짐.

예)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관형어의 기능을 하며 체언을 수식하는 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 -는, -(으)ㄴ, -던'이 결합.

예)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하는 절을 안은 문장. 부사형 전성 어미 '-이, -게, -도록'이 결합.

예)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절 표지가 따로 없음.

예) 토끼가 귀가 길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은 문장. '-(이)라고, -고'가 결합.

예) 철수가 "선생님,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다.(직접 인용) / 우리는 가족이 소중한다고 믿는다.(간접 인용)

V. 문법 요소

1. 종결 표현

: 화자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 종결 어미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뉨.

• 평서문 :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이 자기의 생각만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

예) 내일은 비가 많이 오겠다.

• 의문문 :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판정 의문문	'예/아니오'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밥 먹었니?
설명 의문문	'언제, 누구, 무엇'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언제 밥 먹었니?
수사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 예) 도대체 누가 그 밥을 먹겠어? (=아무도 그 밥을 먹지 않겠다.)

• 명령문 :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예) 이것 좀 읽어 봐.

• 청유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

예) 이것 좀 읽어 보자.

☞ 명령문과 청유문의 구분

차이점	명령문의 주어 = 청자	청유문의 주어 = 청자+화자
공통점	서술어는 보통 동사로 한정되면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았/었-', '-겠-', '-더-'와 함께 나타나지 않음.	

• **감탄문** :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예) 가을이 되니 바람이 참 시원하구나!

2. 높임 표현

: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

: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으로 나뉨.

• **주체 높임 표현** :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주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계시다, 잡수시다' 등으로 실현

예) 선생님께서 집에 가시다.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시다.

• **상대 높임 표현** : 화자가 **상대(청자)**에 대해 높이거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 종결 어미로 실현.

: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 여부에 따라도 나뉨.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격식체	하십시오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	-
	하오체	하오	하(시)오?	하(시)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계체	하네 함세	하는가?	하계	하세	하는구면
	해라체	한다	하느냐? 하니?	해라	하자	하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높임)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체 (두루낮춤)	해	해?	해	해	해

예) 집에 가니? 집에 가시오?

• **객체 높임 표현** : 화자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객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임.

: 부사격 조사 '-께', 특수 어휘 '드리다, 모시다' 등으로 실현

예)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3. 시간 표현

: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를 시제라고 함.

발화시	서술 대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전달되는 시점, 말하는 현재 시점
사건시	서술 대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 **과거 시제 (사건시→발화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았/었-'에 의해 실현

: 대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 '-았/었/였-' 사용, 회상할 때 '-더-' 사용.

예) 나는 밥을 먹었다. 내가 그 학교에 다녔었다. 민호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 **현재 시제 (사건시=발화시)** :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는-/~-'에 의해 실현되고, 형용사나 '이다'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실현됨.

예) 하영이가 밥을 먹는다. 정원의 꽃이 참 예쁘다.

• **미래 시제 (발화시→사건시)** :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실현,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ㄹ 것'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예) 나는 내일 밥을 먹겠다. 내일은 꼭 떠날 것입니다.

• **동작상** :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주로 보조 용언을 통해 실현

- **진행상** :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예) 영수는 학교에 가고 있다.

- **완료상** :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냄.

예) 밥을 다 먹어 버렸다.(완료) 꽃이 피어 있다.(완료상태지속)

☞ '-고 있-'의 중의성 : 진행의 의미와 완료상태지속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음. 예) 영수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

4. 피동 표현·사동 표현

	피동 표현 (↔능동 표현)	사동 표현 (↔주동 표현)
의미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단형 표현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됨. 접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로 실현되기도 함. 예)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힌다.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결합됨. 접미사 '-시키다'로 실현되기도 함. 예)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
장형 표현	'-어지다'나 '-게 되다'가 결합됨. 예)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게 하다'가 결합됨. 예) 민수가 은영이를 웃게 한다.

5. 부정 표현

	'안' 부정문 (단순 부정 / 의지 부정)	'못' 부정문 (능력 부정)
의미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냄.	주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냄.
단형 표현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함. 예) 영수는 귀찮아서 숙제를 안 했다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함. 예) 영수는 아파서 숙제를 못 했다.
장형 표현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아니하다/않다'를 사용함. 예) 영수는 귀찮아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함. 예) 영수는 아파서 숙제를 하지 못했다.

VI. 의미론

1. 의미 변화의 원인

심리적 원인	사람의 심리 작용이 원인이 되어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은유·직유와 같이 유사성에 의한 연상 작용이나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가 주로 이에 속함. 예) '손님'의 의미 변화 : 천연두를 금기시하여 손님이라고 함.
언어적 원인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자주 인접하여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는 경우. 예) 주책(긍정적 의미) → 주책없다 → 주책(부정적 의미) : '주책'이 '없다'와 어울림으로써 '주책없음'의 의미 전체를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변화함.
사회적 원인	일반적인 단어가 특수 집단에서 사용되거나, 반대로 특수 집단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 사용됨으로써 의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예) 공양(供養) : 불교 용어 → 일상어로 일반화됨
역사적 원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그대로 남아 그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게 된 경우. 예) 지갑(紙甲) : 종이로 만든 것 → 가죽, 비닐 등으로 만든 것도 포함

2. 단어들의 의미 관계

·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다의어	동음이의어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 / 의미적 연관성 有 예) 다리[脚] ①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② 책상과 같은 물체의 '다리'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단어 예) 배 ① 사람이나 동물의 몸 ② 배나무의 열매 ③ 물 위로 떠다니는 물건
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로 처리	사전에서 각각을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

· 유의 관계 :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관계 예) 범 : 호랑이

· 반의 관계 :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대답하는 관계

상보 반의어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 예) 남자 : 여자, 삶 : 죽음
방향 반의어	방향상의 대립 관계나 상호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 예) 가다 : 오다, 스승 : 제자
정도 반의어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 예) 많다 : 적다, 덥다 : 춥다

- **상하 관계** :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관계. 다른 쪽을 포함하는 단어가 상의어, 다른 쪽에 포함되는 단어가 하의어
예) 꽃(하의어) : 장미(상의어)

3. 중의적인 문장

수식 범위의 중의성	예) 키가 큰 할머니의 손자가 운동을 잘한다. <중의적 해석> ① 키가 큰 할머니 ② 키가 큰 손자 ☞ 꾸밈을 받는 말과 꾸미는 말의 거리가 가까워야 함.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 철수는 영희보다 야구를 좋아한다. <중의적 해석> ① 비교 대상을 철수와 영희가 야구를 좋아하는 정도로 보는 경우(철수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 vs. 영희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 ② 비교 대상을 영희와 야구로 보는 경우(영희 vs. 야구) ☞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 그는 사과와 배 두 개를 샀다. <중의적 해석> ① 사과 1개, 배 1개 ② 사과 1개, 배 2개 ③ 사과 2개, 배 2개 ☞ 접속 조사 '과/와'로 묶인 말들을 주의해야 함.
부정문의 중의성	예) 친구들이 다 안 왔다. <중의적 해석> ① 한 사람도 오지 않음(와야 할 친구 10명 중 0명) ② 일부가 오지 않음(와야 할 친구 10명 중 8명) ☞ 부정 표현의 단어와 호응하는 말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MEMO